

후쿠에지마 섬: 생태계

고토 열도의 생물 다양성은 서로 다른 기후대의 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한편으로 고유종이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조합은 섬들의 위치와 지질학적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고토 열도는 규슈의 서쪽 먼바다에 위치하며, 온대인 동중국해와 열대의 따뜻한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쓰시마 해류가 남쪽으로부터 흘러들어 고토의 기후를 따뜻하게 만들고 아열대 종이 서식할 수 있게 합니다. 고토 열도에는 2만 년 전인 빙하기의 전성기 때부터 서식하고 있는 종도 있습니다. 당시 고토 열도는 규슈에서 남서로 뻗은 커다란 반도의 일부였습니다. 이윽고 빙하가 녹아 해면이 상승하여 고토 열도가 규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만 년이라는 세월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고토 열도의 생물종은 규슈의 생물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질학적 요인들이 겹쳐 바닷속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섬의 동쪽에는 동중국해의 얇은 여울이 있고, 서쪽에는 오키나와 주상해분의 심해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분수령에서 차가운 해수가 흘러들고, 쓰시마 해류가 따뜻한 바닷물을 운반해 옵니다. 한편, 고토의 산들에서 나오는 유출수는 숲에서 바다로 영양분을 나르며, 해협을 가로지르는 강한 조류에 의해 이들이 분산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토 열도는 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 양쪽에 가깝기 때문에 철새나 나비의 중요한 중계지입니다.

주요 생물

후쿠에지마 섬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종은?

벌매: 꿀벌이나 말벌의 유충을 먹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수만 마리나 되는 벌매가 대륙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후쿠에 상공을 가득 메우며, 섬의 서남쪽 곳에 모여듭니다.

겐지보타루: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열도 전역의 담수역에 서식하는 반딧불이입니다. 신기하게도 후쿠에의 겐지보타루는 다른 지역의 겐지보타루보다 발광 속도가 빠릅니다.

도쿠쓰미미즈망둑어: 후쿠에의 침수된 용암 동굴에 서식하는 희귀한 망둑어입니다. 1968년에 이어나 용암 동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뒤 일본의 다른 몇몇

장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몸길이는 불과 5cm 정도로 빛이 없는 서식지에 살기 때문에 눈이 퇴화했습니다.

산호: 고토 근해에는 많은 종류의 연산호와 경산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후쿠에 항에서 매우 가까운, 이웃한 다타라지마 섬 인근에서는 다이버가 약 42m에 이르는, 오스리바치산호(*Turbinaria peltata*)의 한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이만한 크기가 되려면 몇 세기 동안 성장해야만 합니다.

동백나무: 고토 열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튼튼한 꽃나무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방풍림으로서 심어졌습니다. 후쿠에지마 섬에는 '다마노우라'라는 독특한 품종이 있는데, 1947년에 이 나무가 발견된 후쿠에시와 관련하여 이름을 달았습니다. 짙은 분홍색 꽃잎의 가장자리가 희어서 눈길을 끕니다.

대형 풀고사리: 아시아가 원산지로서 키가 6m 넘게 자라기도 하는 희귀한 양치식물입니다. 고토의 대형 풀고사리는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후쿠에에서는 서식지의 소실과 위법 채취로 인해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따라서 야생 풀고사리가 남아 있는 장소는 엄중히 관리되고 있지만, 재배되는 것은 후쿠에성 인근에 있는 후쿠에 문화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땅나리: 오니다케 산에서는 3년에 한 번, 산꼭대기에 나무가 우거지지 않도록 관리 소각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가장 작은 품종의 섬세한 백합 같은 이 야생화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7월부터 8월에 걸쳐 선명한 주황색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왕나비: 봄에는 일본 열도를 북상하여 도호쿠 지방까지 이동합니다. 가을에는 남하하여 때로는 오키나와, 타이완, 홍콩까지 약 2,500km 거리를 이동합니다. 나비의 수명은 반년 정도이기 때문에 가을에 남하하는 나비는 봄에 북상한 나비의 자손입니다.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후쿠에에서는 이 고운 빛깔의 여행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팔라스다람쥐: 이 다람쥐는 타이완, 인도,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일본에도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껍질을 갉아서 동백나무 등 재배되는 수목에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외래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